



**정토회**

Jungto Society

**(사)에코붓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5-16호 정토회관 | 전화 02)587-8997 전송02)587-8998

E-mail : ecosoo@jungto.org | 담당 : 한명수 간사 (손전화 010-9088-0185)

시행일자 : 2005. 9. 1.

수 신 : 교장 선생님

참 조 : 환경관련 선생님, 영양사선생님

제 목 : 음식남기지 않기 - 빈그릇서약 운동 학교사례발표회 참여 요청

1. 학생들의 지 덕 체 함양과 희망 가득찬 학교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정토회(사)에코붓다는 생태환경교육과 쓰레기제로운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시민 개개인이 가치관과 생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빈그릇운동은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서약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과 음식쓰레기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소박한 실천으로 자연을 살리고 굶주리는 세계 이웃들을 살리는 '비움과 나눔'의 운동입니다. 2004년에 이어 올해에는 학교, 지자체, 기업, 종교계, 사회단체등이 모두 동참하는 "빈그릇운동 -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캠페인"으로 범국민생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 특히 학교에서는 "음식남기지 않기 - 빈그릇서약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교육,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반량을 줄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학교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5. 이에 귀교에서 빈그릇서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라오며, 아래와 같이 학교 학교 빈그릇운동 사례발표회를 열어 각 학교에서 빈그릇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선생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 빈그릇운동 사례발표회 -**

- 1) 주최 : 정토회(사)에코붓다 | 후원 :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 2) 일시 및 장소 : 2005년 9월 14일 (수) 오후 2시 ~4시 30분 | 정토회관 3층 강당
- 3) 참 가 대 상 : 초 중 고 교 환경담당 선생님 또는 관심있는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 4) 참 가 신 청 : 9월 12일까지 동보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첨부 3매 : 학교 빈그릇운동 사례발표회 안내 및 참가신청서 1매, 빈그릇운동 설명서 2매  
에코붓다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005. 4. 19 환경부 명칭변경 승인)

**정토회(사)에코붓다 이사장 법륜  
대표 유정길**

직인 생략

# 학교 빈그릇운동 사례발표회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00-4:30  
 장소 : 정토회관 3층 강당  
 주최 : 정토회 (사)에코붓다  
 후원 :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참가 : 초중고교 환경담당 또는 관심있는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 ■ 프로그램

영상으로 보는 빈그릇운동

빈그릇운동으로 열거는 지구촌 생명운동, 쓰레기 제로운동  
 : 백혜은 ((사)에코붓다 사무국장)

학교 빈그릇운동 사례

발표 1 : 환경살전에 앞서는 아름다운 아이들  
 권영미 (인천 부흥중학교 도덕 교사)

발표 2 : 우리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맹영자 (휘경여고 가정교사)

발표 3 : 초등학교 빈그릇운동의 사례들  
 김순호 (온수초등학교 교사)

발표 4 : 눈높이 빈그릇운동

질의응답 / 모둠별 나눔 / 정리, 다담

희망하시는 선생님께 빈그릇 서약 자료(교육 홍보물)를 배포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미리(2005.9.12까지) 신청해주시면 자리를 마련해놓겠습니다.

정토회관 오는 길		참가 신청서
지하철 이용 :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B카드 본사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지나 칼리복사집 골목으로 10여m 들어오면 건너편에 3층건물의 정토회관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경로 : 팩스 587-8997, 메일 <a href="mailto:ecosoc@jungto.org">ecosoc@jungto.org</a> 담당자 전화 : 587-8997, 010-9088-0185 (한명수간사)
		학교명: (소재지:      시      구)
		참가희망자 이름
		성 별:
		담당 학년,과목, 직책:
		직통전화
		손 전 화:
		메 일:

## 설 명 서

# 비움과 나눔



## 빈그릇운동

### 범국민 생활문화운동

빈그릇운동 - 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캠페인으로 학교, 지자체, 정부, 기업, 종교계, 언론 등 사회의 각 영역들이 함께 참여하여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적 흐름으로 정착되도록 범국민생활문화운동을 펼치고자 함. 이로써 전 국가적 문제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건강, 경제, 환경,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굶주리는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함.

### 서약 내용(개인) -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서약 접수 : 서약하기

서약 증 : 서약자가 휴대하여 항상 기억하고 주변에 빈그릇운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발급

안내책자 및 전단 : 빈그릇운동의 취지와 각 현장에서의 실천방법을 알 수 있도록 보급

서약동참금 천원 : 50%는 굶주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50%는 빈그릇운동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교육 및 홍보 비용으로 사용됨

2004년 : 서약동참금 4천9백여만원 중 2500만원을 기아구호기금으로 전달함

(다얼빈그릇운동본부 500만원, 북한100여만원, 인도불가촉천만100여만원, 천만원)

### 사업 내용

주최 : 정토회(사)에코부터 | 후원 :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전국 각 단체별, 직능별, 종교별로 특성에 맞는 캠페인 진행, 거리캠페인, 온라인캠페인 진행

홍보 : 방송 및 언론 홍보 | 홍보대사 배종옥 (방송인)

빈그릇학교 빈그릇구청 및 지자체 빈그릇기업 빈그릇식당 등 사례만들기

(각 단체의 사례등은 정토회 사례가 아닌 그 단체의 사례로 소개됨)

빈그릇 운동 결산 보고 및 기금 전달 기자회견 | 빈그릇 운동 우수 사례집 발간

### 학교 빈그릇운동의 취지

학생들의 건강 환경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현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자연환경훼손의 차원을 넘어 인간 정서의 파괴를 괴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빈그릇서약과 실천으로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을 자연과 사회와 연관된 존재로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먹을만큼만 적당히 덜어서 남김없이 다 먹게 되면 욕구를 다스릴수 있게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건강해진다. 또 이를 어려운 이웃과 나눠 쓸수 있으니 행복해지고, 욕구의 절제와 나눔이라는 실천덕목을 기르게 된다.

음식남기지않기 운동을 “서약운동”이라는 형태로 전개, 개인들의 자발성과 실천력을 높임

서약은 실천을 위한 시발점이 된다. 서약한 이들에게 “음식남기지 않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서약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캠페인도 빈그릇 서약운동과 함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잔반량을 줄여, 음식물류폐기물로 인한 학교의 경제, 환경적 문제를 해소

음식을 버리지 않고 아껴서 굶주리는 세계 어린이를 지원하는 나눔운동을 전개

**ZeroFoodWaste**

## “빈그릇운동·음식남기지 않기 100만인 서약캠페인”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소박한 약속은  
환경을 지키는 아름다운 실천이며  
지구 저편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일입니다.



### 비움과 나눔

날마다 전세계 5살 미만의 어린이 3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남기는 음식을 그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함이 타인의 고통 위에서 있는 것임을 깨달아  
적게 만들어 남김없이 먹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합니다.

적당량을 만들어서 먹을 만큼 덜어서 먹으면 적게 먹게 됩니다.

적게 먹으면 비만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게 먹으면 욕구를 다스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려운 이웃과 나누어 쓸 수 있으니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적게 먹고 적게 쓰면 자연환경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연을 살립니다.

정토회(사)에코붓다

JungtoSociety / EcoBuddha